



'로타 로마나와 사도좌 대심원이 있는 칸첼레리아 궁 내부'

#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 한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중세는 로마인과 게르만 민족과의 만남이라는 상징을 통해 탄생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비지고트와 로마인이,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하는 갈리아에서는 프랑크족과 로마인이, 이탈리아에서는 롬바르디아족과 로마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이한 민족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와 생김새, 서로 간에 동화될 수 없는 극단의 이질감 속에서 로마인이 이러한 민족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 황제의 약탈적인 조세보다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 그들을 통한 통치가 더 나았다고 여긴데 있었습니다.<sup>1)</sup> 하지만 침입한 이민족들은 로마인이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했을 때처럼, 로마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교와 로마법, 그리고 가톨릭교회를 통해 계승된 교회법이었습니다. 이는 중세 수도사들이 고전 문헌에 대한 고단한 필사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덕에 문화의 찬란한 보고들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 1. 후기 고전기 교회법(1348~1563)

교황 우르바노 2세가 1095년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에 예루살렘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 원정을 호소한 이후 많은 나라가 십자군에 참여했습니다. 십자군이 활기를 띠면서 이른바 ‘기사 수도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수도자와 똑같이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면서도 기사들처럼 직접 전투를 치르고 가난한 이와 병자들을 돌보며 특히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했지요. 1100년에서 1300년에 이런 기사 수도회들은 12개 정도가 활약하고 있었는데, 성전 기사 수도회(성전 기사단)는 요한 기사 수도회(몰타 기사단), 독일 기사 수도회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사 수도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훗날 몰타 기사단은 오늘날 몰타 공화국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1119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기사 8명이 예루살렘 총대주교 앞에서 청빈·정결·순명을 서약함으로써 탄생한 성전 기사단의 주목적은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그리스도의 가난한 형제 군인들’이라 불리던 성전 기사단은 당대 유명한 성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1090~1153)에게서 격찬을 받은 뒤 급속도로 커지면서 12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유럽 곳곳에 지회들이 생겨납니다. 또 교황을 비롯해

군주와 귀족, 후원자들로부터 토지나 재산을 기증받으면서 성전 기사단은 유럽 도처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영향력 또한 확대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수도원끼리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요.

291년 팔레스티나에 남아 있던 십자군 최후의 보루 아크르 요새가 사라센에 의해 함락된 이후, 성전 기사단은 파리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은 ‘미남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필리프 4세(재위 1285~1314)였는데, 그는 프랑스 땅에서는 왕이 교회보다 우위의 권력을 지녀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그는 남부 기엔 지방을 차지한 영국을 몰아내는 데 온 힘을 쏟았지요. 그래서 처남이기도 한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와 7년 동안 두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필리프 4세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성직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달리 빚을 갚을 길이 없자 필리프 4세는 1306년 유대인들을 체포해 재산을 몰수하고 모두 추방해 버리는 비사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막대한 부를 지닌 성전 기사단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기사단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트집 잡아 1307년 8월에는 클레멘스 5세 교황에게 성전 기사단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교황이 머뭇거리자 그해 10월 13일 금요일에 필리프 4세는 프랑스에 있는 성전 기사

1) Cf. A. Barbero, C. Frugoni, Medioevo: Storia di voci, racconto di immagini, Economia Laterza 2015, pp. 6-7.

단 회원을 모두 체포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5세 교황에게 성전 기사단을 해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94년 12월 10일 첼레스티노 5세 교황이 재위에 오르지 100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고, 곧 이어 콘클라베conclave가 열려 이탈리아 귀족 가문 출신인 베네딕토 가에타니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그가 바로 보니파시오 8세 교황(재위 1294~1303)입니다. 보니파시오 8세는 볼로냐에서 교회법을 전공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교황 대사로서 활동했습니다.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은 세속 권력을 능가하는 절대 권위를 지닌 교황권과 영적 분야에서의 전권을 갖고자 한 반면, 필리프 4세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통해 프랑스 영토 안에서는 성직자들도 왕의 권한에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보니파시오 8세와 필리프 4세의 대결 구도는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을 교황이 금지시키고, 반대로 교황이 임명한 주교를 프랑스 왕이 첩자 혐의로 체포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은 1302년 11월 18일 칙서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Unam Sanctam’를 발표하고, 교황의 영적 권위가 다른 모든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필리프 4세는 측근을 통해 교황을 비방하고 현 교황이 전

임 교황 첼레스티노 5세를 암살했으며, 영혼불멸을 부정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 보니파시오 8세는 필리프 4세를 파문하기로 하는데, 파문 교령을 발표하기 전날 교황은 필리프 4세 측근인 기욤 노가레 등이 이끄는 무리에 체포되어 1303년 10월 11일 사망합니다. 보니파시오 8세 후임인 교황 베네딕토 11세(재위 1303~1304)는 필리프 4세와는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전임 교황을 모독한 이들을 단죄하는 일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위 8개월 만에 선종합니다. 이후 콘클라베가 열렸으나 추기경단의 분열로 후임 교황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못했고, 이후 필리프 4세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후임이 선출되는데 그가 클레멘스 5세 교황입니다. 클레멘스 5세는 필리프 4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관식을 로마에서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를 흔히 세계사에서 ‘아비뇽 유수’ 혹은 ‘교황의 바빌론 유배’라고 합니다.<sup>2)</sup>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하고(1309) 수십 년이 지난 뒤, 교회법의 마지막 위대한 고전기 학자인 조반니 단드레아-Giovanni D'Andrea가 사망했습니다. 아비뇽에 있는 교황들

2) 평화신문, 2011년 9월 11일, 이창훈 기자.

### 〈레굴라 유리스Regulae Iuris〉



주석학자들은 <시민법(로마법) 대전>에서 ‘제레날리아generalia’라고 부르는 ‘일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일반 원리’는 ‘레굴라 유리스Regulae Iuris’로 발전하게 됩니다. ‘레굴라 유리스’란 ‘법 규정’이란 뜻입니다. ‘레굴라 유리스’를 모데나 학교Schola Mutinensis에서는 ‘부로카르디Brocardi’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레굴라 유리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있는 <칙법전> <학설취찬> <법학제요> <신칙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아무리 유능한 법학자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쓸 필요한 법리를 그때그때 찾아 인용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외워야 할 내용만 발췌하여 ‘요약본’ 형태로 만든 것이 <레굴라 유리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서머리 Summary’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굴라 유리스>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가운데 로마법의 중요 법률 격언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굴라 유리스>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제어는 ‘법률의 폐지’인 ‘아브로가티오abrogatio’와 ‘개정 derogatio’에 대한 개념입니다. <레굴라 유리스>는 표제어의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개념 가운데 대비되는 다른 개념이 있으면 법률 격언을 함께 병기해서 실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관들이  
동근 탁자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  
동근 탁자에 앉아 재판한다고 '동근'을  
의미하는 '로타'라는 말을 따서 교회  
대법원을 '로타 로마나'라고 불렀음.  
출처: 바티칸 비밀 문서고





‘Corte Imperiale 황제의 재판소’라는 글씨가 법원 건물 밖 현판에 붙여있음.  
이 자리는 과거 로마 시대 황제가 재판했던 곳으로, 그곳을 로마 가톨릭교회가 교회 대법원과 최고 법원 자리로 사용함.

의 ‘바빌론 유배’, 서방 교회의 분열, 공의회 우선주의와 인문주의,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근본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굽적굽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법 규범을 만드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방해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교황청이 아버지농에 있을 때 사도좌 대법원 로타 로마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는 교황이 모든 소송 사건을 심리해야만 했는데, 교황 혼자서는 수많은 소송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루치오 3세 교황은 특정 소송 사건만을 담당하는 교황의 전속 사제를 임명해 그들에게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으며, 후에 ‘소訴의 성립(litis contestatio)’을 추진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사건의 심리 내용에 자신들의 결론을 첨부하여 교황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청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의 시작입니다.<sup>3)</sup>

교황령 안에서 사법관련 문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 대법원과 교회 최고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 대법원을 로타 로마나(Rota Romana)라 했고, 교회 최고법원을 ‘시그냐투라 아포스톨리카(Signatura Apostolica)’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의 최고법원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 최고법원인 시그냐투라 아포스톨리카는 교황청의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교황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통상 8-10명의 추기경이 재판관입니다. 아울러 모든 주에는 주지사가 대귀족과 자치수도원장, 시대표 등을 소집하였는데, 이를 ‘의회, 국회’를 의미하는 단어인 ‘파를라멘툼(parlamentum)’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를라멘툼은 합의체적 기구였는데, 이 라틴어에서 영어의 parliament가 나오게 됩니다.<sup>4)</sup>

교황들의 법령은 다소 간략한 법령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법령집들 가운데 <요한 22세의 교회법 부록서

3) 한동일, “사도좌 대법원 로타 로마나에 대한 고찰”, 『사목연구』 제23집,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9, 91~92쪽 참조.

4) Cf. S. Carocci, *Vassalli del Papa: Potere pontificio, aristocrazie e città nello Stato della Chiesa(XII-XV sec.)*, Viella 2010, pp. 25-33.



테레베 강에서 바라본 바티칸 풍경

Extravagantes Ioannis XXII(1325)와 <공통 법령집Extravagantes communes(1500, 1503)>은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과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Liber Extra>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Liber Sextus> <클레멘스 법령집Clementinae(1317)>에 추가되었지요. 이 6개 법령집을 통틀어서 로마법의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과 비교해 교회법대전Corpus iuris canonici이라 불렀습니다. 교회법대전은 1500년 법학자 지오반니 카푸이스Giovanni Chappuis가 모은 수집물로, 1580년 7월 1일 그레고리오 8세가 헌장「쿰 프로 무네레Cum pro munere」(로마romana'판이라 일컫는다)를 통해서 승인했습니다. 이는 1917년 교회법전이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법의 가장 중요한 원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법대전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해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이라 부른 로마법의 관습을 모방해 6개의 법령집에 대한 공식 편찬이었으며, 이를 '교회법대전'이라고 명하게 됩니다.<sup>5)</sup> 이 명칭은 그레고리오 8세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1582년 정본(공식본)으로 승격되었습니다.<sup>6)</sup>

교회법대전 Corpus iuris canonici(1500)	시민법대전 Corpus iuris civilis(1583)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um Gratiani(1140~1152)	칙법전Codex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Liber Extra(1234)	학설취찬Digesta seu Pandectae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Liber Sextus(1298)	법학제요Institutiones
클레멘스 법령집Clementinae(1317)	비공식 (편집자 추가)
요한 22세의 교회법 부록서 Extravagantes Ioannis XXII(1325)	신칙법Novellae
공통 법령집 Extravagantes communes(1500, 1503)	

<클레멘스 법령집>은 1314년 클레멘스 5세 교황재위 1305~1314 때 편찬되기 시작해 1317년 요한 22세 때 반포되었습니다. 이 법령집은 소송법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특히 여기 실린 교회 소송법은 시민사회 소송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레멘스 법령집>의 소송법 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sup>7)</sup>

이외에 좀더 세련된 문서의 종류로는 실무적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평의회consigli, 재판 지침서manuali giudiziari, 관례집collezioni di giurisprudenza, 특히 로타 로마나의 판결문들, 조사관 지침서manuali per inquisitori, 행정 실무서opere per la prassi amministrativa, 사제와 고해사제 지침서manuali per sacerdoti e confessori 등이 그것이지요.<sup>8)</sup>

이상과 같은 교회법학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신규 대학의 설립, 양피지 대신 종이의 사용, 그리고 특히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교회법은 매우 폭넓게 전파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유럽, 스칸디나비아와 세기 말에는 미국에까지 확산되었고요. 사회적 차원으로는 교회법이 하급 성직자와 일부 평신도 계층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교회법의 확산은 학문적 수준의 저하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5) Cf. C. Corral, Codice di diritto canonico(Codex iuris canonici),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 191.

6) Cf. P. Erdö, op. cit., p. 1045.

7) P. Landau, Die Bedeutung des Kanonischen Rechts für die Entwicklung Einheitlicher Rechtsprinzipien, op. cit., p. 44.

8) Cf. P. Erdö, op. cit., p. 1045.